

# 『素問·陰陽離合論』의 醫學思想에 대한 一考察

- 三才의 觀點을 중심으로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1</sup>

張祐彰<sup>1</sup> \*

## A Study on Medical Thought of 『Somun(素問)-Eumyang-ihamnon(陰陽離合論)』

Jang Woo-chang<sup>1</sup> \*

<sup>1</sup>Dep.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Eumyang-ihamnon(陰陽離合論)』, from aspects of the Samjae theory[三才論], presents the unique insight for understanding dynamics of three E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throughout human body in fundamental level, defining purpose and essence of three Eum and three Yang motion. Furthermore, it indicates Bunbu(分部) of three Eum and three Yang, utilizing principles of Yukhap(六合), which serves as logical basis of three Eum and three Yang Byeonjeung(辨證).

With theoretical meaning and practical values of 『Eumyang-ihamnon(陰陽離合論)』, this study investigates significance of three Eum and three Yang-Ihap-Motion in terms of the Samjae theory[三才論] and clinical uses of the three Eum and three Yang Bunbu theory[三陰三陽分部論].

**Key Words** : three eum and three yang(三陰三陽), samjae theory[三才論], bunbu(分部)

## I. 緒論

三陰三陽은 氣化의 형식을 象數의 논리로 立論한 것으로서 天地와 사람의 氣化, 氣化의 정상과 변이를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생명체를 살아 움직이는 상태에서 연구하는 의학인 한의학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黃帝內經』(이하 『內經』으로 간칭함)에서 經絡, 運氣, 脈診, 辨證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그 이론적 함의와 가치가 개진된 이래 오늘에도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內經』의 여러 篇 가운데, 天地의 三陰三陽을 論한 「運氣七篇」을 제외하면 사람의 三陰三陽을 論한 篇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陰陽離合論」이다. 이편이 지니는 중대한 함의에 대해서는 中國에서 보다 오히려 國內에서 논의가 활발한 상황이다. 朴贊國에 의해 『內經』의 어느 篇보다 經絡의 生成意味를 잘 표현한 篇으로 지적된 이래<sup>1)</sup>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간 다수의 학자들이 三陰三陽과 經絡의 生成, 開闔樞의 의미 등 「陰陽離合論」의 주요 주제를 分節하여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기간의 분절적인 연구에 의해 축적된 성과들을 검토해 볼 때 종합적인 시각을 취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감지된다. 자세히 읽어보면 「陰陽離合論」은 經絡의

\* 교신저자 : 張祐彰,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jangchang@khu.ac.kr Tel : (02) 961-0735,  
접수일(2008년 7월 25일), 수정일(2008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2008년 8월 14일)

1) 朴贊國. 『素問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연구. 대한원전진의학회지. 1992. 6(1). p.131.

外氣化 뿐 아니라 五藏의 內氣化도 암시되어 있으며, 開闔樞의 生理 뿐 아니라 脈診 부위의 제시에 의해 병리적인 관심도 표명되어 있어 종합적인 논의가 일관성 있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 「陰陽離合論」이 氣化와 分部는 물론이요 생리와 병리를 아우르는 통일체적인 관점에서 三陰三陽의 의미를 인식하고자 한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점이 「陰陽離合論」 연구에 있어 종합적인 시각의 도입이 목표로 하는 바이다.

本考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陰陽離合論」이 지향한 바, 이론과 임상 양방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식체계를 재구성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론 방면에서는 전편을 인도하는 주요 원리로 三才의 개념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三才의 원리가 ‘離合’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임상 방면에서는 三陰三陽을 分部로 해석하는 시각을 도입함으로써 陰陽離合 개념 도입의 목적이 辨證論治의 수행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 II. 本 論

### 1. 三陰三陽과 三才

「陰陽離合論」은 三陰三陽의 三數가 陰陽의 二數와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三陰三陽, 不應陰陽, 其故何也.”<sup>2)</sup>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에 대한 답은 “陰陽者, 數之可十, 推之可百, 數之可千, 推之可萬, 萬之大不可勝數, 然其要一也.”<sup>3)</sup>로 주어진다. 여기에서 보이는 數, 즉 一, 三은 二, 五로 대표되는 陰陽五行의 통상적인 數와 달라 보인다. 三은 “其氣三”<sup>4)</sup>, “三生萬物”<sup>5)</sup>의 三으로서, 「三部九候論」에서 말하는 “一

者天, 二者地, 三者人”<sup>6)</sup> 즉 天地人 三才를 표상한다.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sup>7)</sup>은 人體에서 일어나는 三陰三陽 運動이 天地人 三才의 원리를 따름을 선언한 것이다. 楊上善은 “古者, 聖人欲法天地人三才形象, 處於明堂, 南面而立, 以取法焉也.”<sup>8)</sup>라고 하여 정확하게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人體의 氣化는 內的 五行運動과 外的 三陰三陽運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五常政大論」에서 “根于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于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sup>9)</sup>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五行運動은 본질적으로 水火의 升降이고, 三陰三陽運動은 形氣의 出入이다. 內的 神機와 外的 氣立은 互根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六微旨大論」에서 “出入廢, 則神機化滅, 升降息, 則氣立孤危.”<sup>10)</sup>에서라고 하였다. 人體에서 水火의 升降은 土를 媒介로 心腎에 의해 구체화되므로 역시 天地人 三才의 원리와 통한다. 三陰三陽의 운동 역시 三才의 원리를 따르므로 三의 變化로 命名되었다.

「陰陽離合論」은 이렇게 萬物變化의 원리인 三才를 축으로 水火升降, 陰陽離合, 六合分部를 하나로 관통하는 統一的 論리를 구축함으로써 인체와 질병을 바라보는 全一的 視각을 도출하고 있다.

### 2. 三陰三陽運動의 세 기준점

三陰三陽은 外로 드러나는 形의 변화를 말한다. 形은 氣를 담는 그릇이고 氣는 形을 이루는 本體이므로 形의 변화는 사실상 形氣의 轉化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氣裏形表而爲相成也”<sup>11)</sup>라고 하였다.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然則中爲陰. 其衝在下.”<sup>12)</sup>

1997. p.170.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三部九候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81.

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8)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104.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五常政大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57.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六微旨大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44.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生氣通天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6.

5) 王弼 지음. 임채우 옮김. 왕필의 노자. 예문서원. 서울.

는 水火升降의 이치를 표명하였으면서도 직접적으로 臟으로 명명하지 않았다. 이는 三陰三陽運動이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形氣의 相生을 기준으로 기술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太沖(太衝)은 北方水를 主管하는 腎과 連繫되고 廣明은 南方火를 主管하는 心과 연계되며, 形沖(其衝)은 心腎水火의 升降을 조절하는 中央脾土와 連繫된다.

張介賓은 廣明과 南方火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易』을 인용하여 “廣, 大也. 南方者, 丙丁之位, 天陽在南, 故日處之. 人陽亦在南, 故七竅處之. 易曰: 相見乎離, 卽廣明之謂.”<sup>13)</sup>라고 설명하였다. 太衝은 王冰 이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太衝脈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廣明과의 대응 관계, 水火論의 관점 등을 고려할 때 이곳의 太衝은 ‘太沖’으로 봄이 옳다고 생각한다. 太沖은 南方火를 표상하는 廣明의 對로서 北方水를 표상한다. ‘沖’은 ‘비다’, ‘공허하다’의 뜻으로 道의 속성을 물에 비유한 글자이다. 太沖은 『莊子·應帝王』에 “太沖莫朕”<sup>14)</sup>이라 한 것이 보이는데, 여기서 ‘太沖’은 太虛이고 ‘莫朕’은 無朕이므로 ‘太沖莫朕’은 太虛하여 아무런 조짐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陰陽五行의 관점에서 보면, 太沖은 곧 도의 근원으로서 水의 象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王冰이 太衝脈으로 해석하여 ‘太衝’으로 기재한 이래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를 따랐으나<sup>15)</sup> 王冰보다 시기가 이른 楊上善의 『太素』에서는 ‘太沖’으로 기재하였다.<sup>16)</sup> 그러나 아쉽게도 楊上善은 ‘太沖’이라 한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形沖’은 『陰陽離合論』에 그 명사가 직접 언급되지 않았으나 “然則中爲陰, 其衝在下.”에 보이는 ‘其衝’의 의미를 고려하여 필자가 임시로 가설한 용어이다. “然則中爲陰”의 中은 “外者爲陽, 內者爲陰”의 外內三陰三陽과 대비되는 內의 五藏을 가리킨다. “其衝在

下, 名曰太陰.”에서 ‘沖’ 앞의 관사 ‘其’는 ‘太沖’과 대비되는 다른 ‘沖’의 존재를 암시한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三陰三陽의 形體의 沖을 말한다. 그러므로 ‘形沖’이라 하였다. 즉 太沖이 內의 五藏과 外의 三陰三陽을 합한 전체의 沖이라면 形沖은 三陰三陽 形體의 沖에 해당한다. 人身 전체 氣化의 뿌리는 水이므로 太沖은 少陰腎과 연계되고 形體의 뿌리는 中土이므로 形沖은 太陰脾와 연계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太沖, 廣明, 形沖은 土를 바탕으로 하는 水火의 운동이 氣化의 本體임을 표현하기 위한 술어이다. 한편 『陰陽離合論』은 이들 개념을 三陰三陽의 구체적인 分部를 밝히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太沖, 廣明, 形沖은 신체상의 구체적인 부위와 연계될 수 있다.

太沖이 腎精에서 發源하는 衛氣가 上으로 나오는 부위라면 廣明은 心神의 用이 밖으로 크게 펼쳐진 부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太沖은 腎이 자리한 腰股가에 해당하고, 廣明은 앞으로 넓게 벌어진 心胸 부위가 이에 해당한다. 形沖은 太衝과 廣明의 사이로서 營氣의 所出인 中脘 부위가 이에 해당한다. 오장 기화의 외부 발현을 설명하고 있는 『素問·金匱眞言論』에서 心俞를 胸部로 보고, 腎俞를 腰股로 보고 脾俞를 脊<sup>17)</sup>으로 본 예에 따라 추론한 것이다(“東風生於春, 病在肝俞, 在頸項; 南風生於夏, 病在心俞, 在胸脇; 西風生於秋, 病在肺俞, 在肩背; 北風生於冬, 病在腎俞, 在腰股; 中央爲土, 病在脾俞, 在脊.”<sup>18)</sup>)

한편 太衝은 腎과 연계되어 精과 氣의 轉化가 일어나는 기준점이고, 中衝은 中土와 연계되어 氣와 形의 轉化가 일어나는 기준점이다. 太衝과 廣明이 心腎水火의 升降에 應하여 上下로 直立해 있다면, 中衝은 脾土에 應하여 水火의 升降을 媒介한다.

### 3. 陰陽의 離合運動

판부. 서울. 1985. p.29.

13) 이남구 현도주석. 張介賓 著. 類經. 법인문화사. 서울. 2006. p.361.

14) 안병주, 전호근 공역. 역주 장자1.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2003. p.336.

15) 王冰. 黃帝內經素問 王冰註(四部備要本). 서울. 대성출판사 영인. p.75.

1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104.

17) 『金匱眞言論』에서는 脾臟을 기준으로 말했으므로 脊을 들었으나 形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太陰의 氣가 왕성한 中脘 부위가 더욱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金匱眞言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0.

1) 離化와 合化

宇宙의 變化란 分裂과 統一이 끝없이 반복하며 精神을 창조하는 운동이며, 사람 역시 이를 따른다. 음양변화의 결과로 一氣가 三陰三陽으로 분열하여 形體를 이루지만 일순간도 一의 本體를 떠나지 않으며, 三陰三陽으로 離化한 氣는 결국 一氣로 合化하여 精神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현상계에서 離와 合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지만 離合에 의한 음양변화의 실상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離合을 離化와 合化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三陰三陽 운동의 근원인 水火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離化는 水의 火로의 분열을 뜻하고 合化는 火의 水로의 통일을 뜻한다. 이를 수리론적 관점에서 보면 三은 분열의 離化運動의 형식을 말하고 一은 統一의 合化運動의 형식을 말한다. 인체에서 一은 精에 해당한다. 精은 內의 水火升降과 外의 形氣化生의 本體가 된다. 「陰陽離合論」에서는 “天覆地載, 萬物方生, 未出地者, 命曰陰處, 命曰陰中之陰.”<sup>19)</sup>이라고 하였다. ‘陰處’는 사람으로 말하면 先天之精에 해당한다. ‘出地’는 生命活動이 개시된 상태로 精에서 發源하는 精氣에 해당한다. 先天之精을 바탕으로 生命活動이 개시된 後로 인체는 지속적으로 天氣와 地氣를 받아들여 生命을 營衛해야 한다. 이를 목적으로 一氣는 一陰一陽으로 離化하여 兩極을 형성한다. 陽氣는 精을 분열시켜 氣로 변화시키고, 陰氣는 氣를 凝集하여 形을 이룬다. 그러므로 “陽化氣, 陰成形.”(「陰陽應象大論」)<sup>20)</sup>이라 하였다. 「陰陽離合論」에서는 “陽予之正, 陰爲之主.”<sup>21)</sup>라고 하여, 이 陰陽이 互根의 관계에 있는 一氣의 兩極의 작용임을 분명히 밝혔다. 즉 이 氣는 精이 활동을 개시하여 陰陽의 兩極성을 띠게 된 상태로 달리 말하면 精에서 발생한 精氣이다.

一陰一陽의 三陰三陽으로의 離化는 현상적으로 天地의 氣味를 받아들여 形氣를 化生하는 운동이지만 궁극적으로 精神을 再創造하는 合化로 귀결된다. 이

렇게 離化運動은 중국적으로 精으로 다시 統一되므로 “其要一也”<sup>22)</sup>라고 하였다. “其要一也”는 철학적으로 太極을 말한다. 모든 변화는 太極에서 비롯되어 太極으로 귀결된다. 太極은 極히 클 수 있는 바탕을 지니면서도 極히 작은 象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萬物變化의 本體가 되며 인체에서는 精이에 해당한다.

2) 三陰三陽 開闔樞와 陰陽表裏 三合

三陰은 外로 形이 분열하는 운동이며 三陽은 內로 氣가 통일되는 운동이다. 三陰은 표면적으로 形의 분열로 나타나지만 本體는 木火土의 陽이며, 三陽은 표면적으로 氣의 통일로 나타나지만 本體는 金水의 陰이다. 이렇게 三陰三陽이 體用이 陰陽으로 상반됨은 離化運動 과정에 이미 合化의 기틀이 갖추어져 있음을 뜻한다.

開闔樞는 三陰의 離化運動과 三陽의 離化運動의 象을 묘사한 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陰의 開闔樞와 陽의 開闔樞는, 形의 분열과 氣의 통일 과정에 다시 분열시키고(開), 통일시키고(闔), 분열과 통일의 추세를 조절하는(樞) 운동이 개입됨을 뜻한다. 開闔樞는 사실상 一體의 三用에 불과하여 이미 合化의 象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命曰一陽. 厥陰爲開, 少陰爲樞. 名曰一陰.”<sup>23)</sup>, “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名曰一陰.”<sup>24)</sup>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三과 一은 상호 浸透하며 變化를 推動하고 完成한다. 그 과정에서 形氣가 相互轉化하므로 “陰陽鍾鍾, 積傳爲一周, 氣裏形表而爲相成也.”<sup>25)</sup>라고 하였다.

一陰一陽이 三陰三陽으로 離化하는 과정에 이미 合化의 기틀이 갖추어져 있으나, 三陰은 三陰대로 三陽은 三陽대로 氣의 多少와 開闔樞의 用이 다르므로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3.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內로 진행되는 合化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三經者不得相失也”라고 하여 合化를 위해 다른 무엇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陰陽表裏의 三合 즉 少陰太陽, 太陰陽明, 厥陰少陽의 三合은 三을 一로 合化하는 運動을 돕는다. 이들이 合을 이루는 所以然은 『素問脈解』의 설명에 암시되어 있다. 『素問六微旨大論』의 歲氣會同說을 바탕으로 三陰三陽을 地支에 배속하면 그림 1과 같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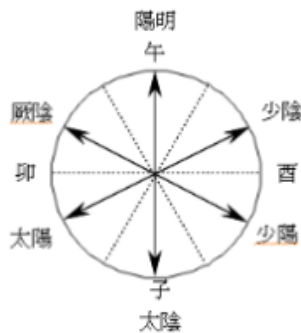


그림1. 陰陽表裏三合圖

水의 변화를 나타내는 申, 子, 辰월에 각각 少陰, 太陰, 厥陰이 배속되고, 火의 변화를 나타내는 寅, 午, 戌월에 각각 太陽, 陽明, 少陽이 배속된다.

26) 李鏞泰는 素問脈解의 少陰 十月을 七月로 고칠 것을 주장하면서, 少陰의 기운이 辰三月에 사라지고, 申七月에 생성되며, 子十一月에 왕성하게 발현됨을 설명하는 것으로, 水氣의 변화 과정인 歲氣會同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한편 歲氣會同의 說은 素問六微旨大論에 보인다. 일년을 365일 25刻으로 정하고 甲子年 즉 子年에는 1각에서 시작해서 25각으로 끝나며, 乙丑年 즉 丑年에는 26각에서 시작해서 50각으로 끝나고, 丙寅年 즉 寅年에는 51각에서 시작해서 75각으로 끝나며, 丁卯年 즉 卯年에는 76각에서 시작해서 0각으로 끝난다. 戊辰年 즉 辰년에는 다시 1각에서 시작해서 25각으로 끝나게 되니, 1각에서 시작하는 해는 子辰申년이고, 26각에서 시작하는 해는 丑巳酉年이며, 51각에서 시작하는 해는 寅午戌年이고, 76각에서 시작하는 해는 卯未亥年이 되어 이를 각각 歲氣會同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寅午戌은 火氣의 歲氣會同이며, 申子辰은 水氣의 歲氣會同이고, 巳酉丑은 金氣의 歲氣會同이며, 亥卯未는 木氣의 歲氣會同이 된다.(李鏞泰,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이해, 大韓形象醫學會誌, 2003. 4(1). p.178.)



그림2. 水火三合圖

그림 2는 三陰三陽의 변화가 內的으로 水火의 升降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림 1은 少陰太陽, 太陰陽明, 厥陰少陽이 각각 對待의 형식을 통해 內的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內的인 連繫 즉 表裏三合의 목적은 水火升降의 목적인 精氣神의 創造를 돕는데 있다. 즉 少陰太陽의 合化는 精의 滋養을 도와 天에 응하고, 太陰陽明의 合化는 氣의 化生을 도와 地에 응하며, 厥陰少陽의 合化는 神의 調和를 도와 人에 응한다. 그러므로 이 또한 三才의 원리를 따른다고 하겠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少陰太陽의 合化는 精의 生成을 돕는다. 君火의 작용에 의해 少陰에서 발생한 衛氣는 太陽에 의해 皮毛로 펼쳐지고, 寒水의 작용에 의해 凝結된 精은 少陰에 의해 腎에 潛藏된다. 三陰三陽 離化運動의 관점에서 보면 太陽은 衛氣를 펼치므로 하므로 開라 하였고, 少陰은 太陰과 厥陰 사이에서 陰氣의 開闔을 조율하므로 樞라 하였다. 少陰은 陰이 다한 厥陰에 비해 비교적 陰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太陽의 開작용을 도울 수 있으며, 太陽은 氣를 凝集하는 力量이 最大이므로 少陰의 도움으로 精을 生成할 수 있다.

太陰陽明의 合化는 氣의 化生을 목표로 한다. 濕土의 작용에 의해 太陰에서 化生된 津液은 陽明의 작용에 의해 胃에 저장되고, 燥金의 작용에 의해 收斂된 氣는 太陰을 통해 全身에 수송된다. 太陰陽明이 氣의 生成과 輸布를 목적으로 함을 「太陰陽明論」은 “太陰

爲之行氣於三陰。陽明者，表也，五藏六府之海也。”<sup>27)</sup>이라고 하였다. 陽明胃는 ‘五藏六府之海’이므로 闔이라 하였고, 太陰脾는 ‘行氣於三陰’하므로 開라 하였다.

厥陰少陽은 神의 造化를 돕는다. 風木의 작용에 의해 厥陰에서 발생한 相火는 少陽에 의해 三焦膜理로 확산되어 氣化를 鼓動하고, 相火의 작용에 의해 창조된 魂은 厥陰에 의해 肝木에 潛藏되어 神의 造化를 돕는다. 少陽은 相火의 작용으로 太陽과 陽明 사이에서 陽氣의 開闔을 조율하므로 樞라 하였다. 厥陰은 魂을 潛藏하는 역할을 하므로 闔이라 하였다. 이렇게 厥陰은 魂을 潛藏하여 陰陽不測의 象을 보이므로 “陰之絕陽，陰之絕陰.”<sup>28)</sup>이라 하였다. 厥陰은 表裏三合의 관점에서 보면 少陽의 짝으로서 人에 應하여 樞의 象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조율하는 기능은 肝에 잠장된 魂에서 비롯되며, 三陰 가운데 하나로서 厥陰의 임무는 肝으로 魂을 潛藏함에 있으므로 闔이라 하였다. 厥陰이 三陰三陽의 선두에 위치하는 까닭 역시 厥陰을 통한 肝魂의 發揚에 의해 三陰三陽의 運動이 鼓動되기 때문이다. 「陰陽應象大論」의 “東方生風，風生木，木生酸，酸生肝，…其在天爲玄，在人爲道，在地爲化。化生五味，道生智，玄生神.”<sup>29)</sup>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 4. 三陰三陽의 分部와 辨證

三陰三陽의 運動은 形體의 外로 發現되므로 人體의 특정 구역과 관련된다. 그 원리는 「陰陽應象大論」에서 “上古聖人，論理人形，列別藏府，端絡經脈，會通六合，各從其經.”<sup>30)</sup>라고 하였듯이 六合의 원리에서 도출된다. 그러므로 「陰陽離合論」은 三陰三陽의 位를 설명함에 있어 少陰太陽은 上下라 하고, 太陰陽明은 前後라 하고, 厥陰少陽은 表裏라 하여 六合의 형

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三陰三陽의 分部를 究明하여야 하는 까닭은 三陰三陽 辨證과 관련된다. 즉 病症이 發현하는 部位와 病證의 屬性을 合參함으로써 질병이 나타내는 陰陽의 偏差를 파악할 수 있다. 「至眞要大論」에서 말하는 “氣之上下何謂也. 岐伯曰: 身半以上, 其氣三矣, 天之分也, 天氣主之. 身半以下, 其氣三矣, 地之分也, 地氣主之. 以名命氣, 以氣命處, 而言其病.”<sup>31)</sup>는 바로 이를 말한다. “以名命氣”은 天地 六氣運動의 원리에 따라 人身 三陰三陽이 立論되었음을 말하며 “以氣命處”는 人體의 특정 구역으로 發현되는 病氣를 관찰하여 三陰三陽의 病을 辨證할 수 있음을 말한다.<sup>32)</sup> 이렇게 六氣의 變化와 三陰三陽의 구역 分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辨證을 수행하므로 “而言其病”이라 하였다. 「陰陽離合論」이 人身 六合을 설명함에 있어 六氣氣化의 逆順을 취하고 있는 점 역시 論者의 趣旨가 三陰三陽의 辨證이라는 실천적인 목적을 향해 있음을 보여준다.

少陰太陽은 太衝에서 發源하여 그 分部가 人身의 後面에 해당하고, 太陰陽明은 中衝에서 發源하여 그 分部가 人身의 前面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中身而上, 名曰廣明”이라 하여 後下의 太衝과 前上의 廣明으로 기준을 잡았다. 이는 水火의 升降이 三陰三陽運動의 동력임을 지적하는 한편, 水火의 升降을 中土가 조절함을 밝힌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太陰陽明論. 東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12.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東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東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3.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 東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3.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至眞要大論. 東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9.

32) 周學海는 三陰三陽의 分部와 辨證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至眞要大論」에 말하기를 ‘以名命氣, 以合命處, 以言其病.’이라고 했다. ‘名’은 四象의 명칭으로서 ‘陰陽離合論’의 이른바 三陰三陽의 名을 말한다. ‘氣’는 六氣를 말한다. ‘處’는 人身 十二經脈의 部位를 말한다. 이상을 통해 보건대 天地四方의 象을 基準으로 三陰三陽의 명칭을 일으키고, 因하여 그 명칭에 六氣를 가하고, 因하여 그 명칭에 人身을 가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三陰三陽의 명칭을 빌려 氣(六氣)와 處(分野)가 所屬한 부를 별도로 분석하여 유추하는 방식으로 그 병을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불과하다. ‘말한다’ 함은 토론함을 뜻한다. (「至眞要大論」曰, 以名命氣, 以合命處, 以言其病. 名謂四象之名, 則「陰陽離合論」所稱三陰三陽之名也. 氣, 風寒暑濕燥火之六氣也. 處, 人身十二經絡之部位也. 由此觀之, 以天地四象之象, 起三陰三陽之名, 因即以其名加之六氣, 因即以其名加之人身, 此不過借以分析氣與處各有所屬, 俾得依類以言其病耳. 言者討論之謂也.)”(周學海,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54-255.)

의미가 있다.

三陽은 形이 분열되는 운동이므로 三陽의 分部는 形體에 중점을 두어 말하였고, 三陰은 氣를 통일하는 운동이므로 三陰의 分部는 五臟에 중점을 두어 말하였다. 三陽의 病은 주로 身半以上の 形體에 나타나므로 三陽의 主張인 太陽으로 대표하여 “少陰之上, 名曰太陽.”<sup>33)</sup>이라 하였다. 三陰은 五臟에 뿌리를 두며, 五臟의 五行運動은 土를 매개로 하므로 “中爲陰”이라 하여 中土를 기준으로 삼았다. 三陰 가운데 太陰을 선두에 둔 것은 太陰이 脾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기도 하고, “陰者, 地氣也, 主內.”(『太陰陽明論』)<sup>34)</sup>라고 하여 三陰의 主張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三陰三陽의 分部를 살펴보겠다. 太陽의 分部는 “少陰之上” 즉 後上의 頭項背에 해당한다. ‘太’는 ‘高’의 뜻과 ‘遠’의 뜻을 함께 갖는다. 즉 太陽은 三陽 가운데 가장 位가 높고 氣化의 根本인 太沖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太陽의 結인 命門은 五臟六腑의 精이 上注하여 精光이 外로 發하는 곳이므로 太陽의 象과 통한다. 또한 그 작용은 크면서도 형체는 단단하게 오므려 太陽의 象에 응한다. 陽明의 分部는 “太陰之前, 名曰陽明”<sup>35)</sup> 즉 前上의 面胸腹에 해당한다. 陽明은 ‘兩陽合明’의 뜻으로서 陽氣가 가장 성대한 부위이다. 面과 胸은 인체에서 陽氣가 가장 盛大한 곳이며 형태적으로도 크게 벌어져 있어 陽明의 象에 應한다. 少陽은 기준점을 말하지 않았으나 太陽과 陽明의 分部를 기준으로 보면 側面의 耳脇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위는 前後 사이에 끼어 부위가 狹小하며 형체도 부드러운 少陽의 象에 응한다.

三陰은 三陽과 表裏를 이루어 互根의 관계에 있으므로 “外者爲陽, 內者爲陰.”<sup>36)</sup>이라 하였다. 三陰은 內로 감추어져 五臟과 직접 연계된다. 그러므로 三陰의 位는 臟의 위치를 기준으로 말하였다. 太陰은 中脘에서 膈에 이르는 부위의 속으로서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해당하므로 “陰中之陰”<sup>37)</sup>이라 하였다. 太陰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여 形을 생하는 기준점이 되는 동시에 형체 역시 陰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져 있으므로 太陰의 象에 응한다. 少陰은 “太陰之後, 名曰少陰”<sup>38)</sup>이라 하였다. 이는 少陰이 脾의 뒤인 腎에 뿌리를 밝힌 것이다. 少陰은 그 分部가 上前을 향해 벌어진 太陰에 밀려 後下로 오므라져 있으며 그 작용 역시 陰氣의 조절자로서 부드러우므로 “陰中之少陰”<sup>39)</sup>이라 하였다. 厥陰은 “少陰之前, 名曰厥陰”<sup>40)</sup>이라 하였다. 이는 少陰과 太陰 사이가 厥陰의 分부임을 말한다. 厥陰은 뒤의 少陰과 앞의 太陰의 압력에 의해 아래로 少腹前陰과 서혜부로 밀리게 된다. 『內經』에서 일관되게 厥陰의 病候로서 少腹前陰의 증상을 언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sup>41)</sup> 『傷寒論』에서는 이 부위를 血室이라 하여 이곳으로 熱이 들어가면 譫語가 나타난다고 하였다.<sup>42)</sup> 이 역시 魂을 潛藏하는 厥陰關의 기능과 관련된다. 厥陰은 氣의 통일이 완수되고 形을 생하려 하나 세력을 갖추지 못하여 逆出하는 象을 띤다. 그러므로 ‘厥’이라 하였다. ‘厥’은 形을 뜻하는 ‘尸’와 ‘逆’을 합친 글자로서 形을 뚫고 氣가 逆出함을 말한다.<sup>43)</sup> 이렇게 陰中에서 初出한 陽으로서 뿌리가 없으므로 “陰之絶陽”이라 하였다. 또한 이미 氣가 魂으로 통일되어 陰勢力마저 다했으므로 “陰之絶陰”이라 하였다.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41)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뿐만 아니라 內經의 많은 편에서 少腹, 前陰의 厥陰 순행 부위를 기준으로 厥陰 病候를 포착하고 있다.(장우창. 傷寒論의 厥과 厥陰病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8. 21(2). pp.95-96.)

42) 143, 144, 145, 216의 4개 조문에 보인다.(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全·注解傷寒論.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454. pp.440-441.)

43)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대원출판. 2002. p.153.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太陰陽明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12.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陰陽離合論.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29.

## II. 結 論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陰陽離合論」은 萬物變化의 원리인 三才論를 핵으로 水火升降, 陰陽離合, 六合分部를 하나로 관통하는 統一的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인체와 질병을 바라보는 全一的 시각을 도출하고 있다.
2. 太沖, 廣明, 形沖은 身體 上에서 구체적인 部位로서, 三陰三陽 離合運動의 세 기준점이며 內로 水火升降과 연계된다.
3. 離合은 分열과 통일을 반복하는 음양운동의 모습이며, 三一은 그 數이다. 離化는 水의 火로의 분열을 뜻하고 合化는 火의 水로의 통일을 뜻한다. 이때 三은 分열의 離化運動의 형식이고, 一은 統一的 合化運動의 형식이다.
4. 開闔樞는 三陰三陽의 離化運動의 象을 묘사한 말로서 사실상 一體의 三用을 뜻한다.
5. 三陰三陽은 開闔樞의 用이 다르므로 內로 진행되는 合化를 완성하기 위해 表裏三合이 요구된다. 이는 水火升降의 목적인 精氣神의 創造를 돕는다. 즉 少陰太陽의 合化는 精의 滋養을 도와 天에 응하고, 太陰陽明의 合化는 氣의 化生을 도와 地에 응하며, 厥陰少陽의 合化는 神의 調和를 도와 人에 응한다.
6. 少陰太陽은 上下라 하고, 太陰陽明은 前後라 하고, 厥陰少陽은 表裏라 하여 六合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三陰三陽의 分部를 말한다. 이는 三陰三陽 辨證과 관련된다. 즉 病症이 발현하는 部位와 病證의 屬性을 合參함으로써 질병이 나타나는 陰陽의 偏差를 파악할 수 있다.

「陰陽離合論」은 三才論의 思惟를 基幹으로 三陰三陽運動의 目的과 本質을 究明하여 인체에서의 三陰三陽 變化를 原理的인 次元에서 이해할 수 있는 地平을 提示하였다. 더욱이 그에 그치지 않고 六合의 原理를 活用하여 三陰三陽의 分部를 제시함으로써 三陰三陽辨證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상을 통해 설명된 三陰三陽의 分部에 대한 이해에, 三陰三陽

의 本氣로서 六氣의 氣化에 대한 지식 그리고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통찰을 아울러 病證을 상세히 분석하는 辨證의 과정이 「至眞要大論」에서 말하는 “以名命氣, 以氣命處, 而言其病.”에 해당한다.

## 參考文獻

「논문」

1. 朴贊國. 素問陰陽離合論을 中心으로 한 三陰三陽 研究. 大韓原典醫學史學會誌. 1992. 6(1). pp.131-137.
2. 李鏞泰.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이해. 大韓形象醫學會誌. 2003. 4(1). p.179.
3. 장우창. 傷寒論의 厥과 厥陰病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원전학회지. 2008. 21(2). pp.95-96.

「단행본」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서울. 1985. p.16, 20, 23, 29, 81, 112, 244, 257, 299.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104.
3. 王冰. 黃帝內經素問 王冰註(四部備要本). 서울. 대성출판사 영인. p.75.
4. 張介賓 저. 이남구 현토주석. 類經. 법민문화사. 서울. 2006. p.361.
5. 周學海. 周學海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54-255.
6.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대원출판. 2002. p.153.
7. 李順保 編著. 傷寒論板本大全·注解傷寒論. 學苑出版社. 北京. 2000. p.440, 441, 454.
8. 王弼 지음. 임채우 옮김. 王弼의 老子. 예문서원. 서울. 1997. p.170.
9. 안병주, 전호근 공역. 역주 莊子 1. 전통문화연구회. 서울. 2003. p.336.